江戸時代末 日本의 西洋言論文物 受容過程에 관한 小考

車 培 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I. 序 論

우리나라 근대언론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근대언론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특질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규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은 물론, 언론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일본과 비교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일본·한국 등 동양 제국에서는 전근대적 언론현상들이 근대언론으로 이행, 발전하지 못하고, 그 대신 서양의 언론문물들을 도입, 수용하여 근대언론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때 세 나라가 각각 서양의 언론문물들을 어떻게 도입, 수용하여 근대언론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는지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들을 고찰해 본다면,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특질을 밝혀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 問題의 提起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특질을 규명해 보려는 연구들이 그간에 이미 없지 않았는데, 그 하나로는 일찍이 독일에 유학,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1928년 신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현준(金賢準)의 박사논문인 "동아세아(일본 · 중국 · 한국)에서의 현대 신문의 생성발전"을 손꼽을 수 있다.[1] 하지만 이 연구논문은 중국 · 일본 · 한국 세 나라에서 근대언론의 생성 ·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서술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상에서의 세 나라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 고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차이점에 관한 논급이 없지 않은데 그 주요 내용만 간단히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동아세아의 신문이 발전해 오는 동안 이들 신문이 접한 다양한 외국의 영향은 각 나라의 세계관에 알맞은 다층적인 형태의 표현양식 속에 섞여 버렸다. …… 일본인들은 기교적 입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비록 서방에서 유입된 초현대적인 것이라도 예술가들의 붓과 저널리스트들의 펜으로써 능히 일본의 형상(Gestalt und Form)으로 수용했다. …… 그러나 중국은 모든 면에서 보수주의 경향이 짙었고 전통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서방에서 유입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수용하며, 게다가 심화된 당파싸움과 날카롭게 평행선을 가는 반대세력들 사이의 반목으로 인해 공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 중국은 신문들이 통일된 형태에 이르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그들 민족의 성격과 기질, 광범한 중국 국민층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관념의 다양성이 심화되었다. …… 한편 한국의 신문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익집단의 억압에 의해, 특히 물밀듯 흘러 들어오는 현대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신문 발행의 형상을 결정지은 것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심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냉엄한 정치적 필요성 바로 그것이 신문의 외적 이미지를 창조했다. 왜냐하면 한국 신문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성의 사설과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었기 때문이다(차배근 외, 1977, pp. 389-390에서 재인).

하지만 중국 · 일본 · 한국 세 나라의 근대언론의 생성 · 발전과정에 관한 또 하나의 대표적 연구논문인 임근수(林根洙)의 "동양에 있어서의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1969)를 보면, 위와 같은 김현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한국의 근대신문은 서구화된 일본 언론문물의 도입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때 <한성순보>(漢城旬報)와 <한성주보>(漢城周報)가 형성해놓은 일본적 원형의 성격을 그 후의 다른 신문들이 고쳐놓을 겨를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근대신문은 일본의 근대신문과 그 원형적 성격이 거의 동일하여, 중 · 일 양국에서 볼

---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김현준의 이 논문은 차배근·정진석·리대룡·박정규 편저, <한국신문학사>(서울: 정음사, 1977), 부록 362-394쪽에 실려 있음.

수 있었던 특이성이 별로 없다고 했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근대신문의 이식·생성과정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중엽까지의 중·일 양국의 수용 자세는 그 방향이 상당히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요컨대 하나(중국)는 수동적·타율적이요, 또 하나(일본)는 어지간히 능동적·자율적이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엇갈린 방향의식은 그들이 뒤에 근대신문을 수립하고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은 물론이다. … [그런데] 이 동안의 조선의 형편을 보면 문자 그대로 'Hermit Nation'이었다. …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초기적 관련은, 일본은 물론, 중국이 밟아온 발자취와는 아주 다른 방향과 위치에로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 한편 중·일 두 나라에서는 이미 서양의 근대신문과의 접촉을 끝내고 각기 신문의 자립을 꾀하는 단계로 접어들 무렵, 이때 비로소 조선의 지도층은 뒤늦게 눈을 여기에 돌리게 되었다. 그것도 한걸음 앞서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의 대조선 개국 강요에 따라 이뤄진 중역된 간접적인 서구화(서구화된 일본문물의 도입)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 이때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형성해놓은 일본적 원형의 성격을 그 후의 다른 신문들이 고쳐놓을 겨를이 없었다. 이것[일본적 원형의 성격]을 무너뜨리고, 새롭고 독자적인 원형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신문은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이 유일무이한 것이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 것이었기 때문이다(임근수, 1969, p. 41, p. 43 및 p. 89).

위와 같이 중국·일본·한국 3국에서 근대언론의 생성·발전과정과 그 차이점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특질을 규명해 보려는 대표적 연구로는 김현준과 임근수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2]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김현준에 의하면, 한국의 근대신문도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으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심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냉엄한 정치적 필요성 바로 그것이 일본의 근대신문과는 다른 독특한 외적 이미지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임근수는 주장하기를, 한국의 근대언론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뒤늦게 1880년대부터 주로 일본으로부터 서구화된 언론문물의 도입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형성해놓은 일본적 원형의 성격을 그 후의 다른 신문들이 고쳐놓을 겨를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근대신문은 일본의 그것과 그 원형적 성격상에 특이성이 별로 없다는 것

2) 임근수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논문 이외에 또한 이에 관한 것으로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발행 <신문연구소학보> 제10집(1973)과 제11집(1974)에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라는 2편의 논문을 발표했음.

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김현준과 임근수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 내지 견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

2. 硏究目的과 硏究問題

본 소고(小考)는 본래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근대언론의 원형적 성격부터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것과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성격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과연 임근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초기 근대신문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등은 일본으로부터 서구화된 언론문물을 도입하여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형적 성격이 일본 근대신문의 그것과 같았는지, 또는 김현준의 주장대로, 비록 우리나라 근대언론이 그 생성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심미주의적이었던 일본 근대신문의 성격과는 달리,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차후에 해보기로 하고, 본 소고에서는 우선 일본의 개항 초기인 에도시대(江戶時代) 말기 서양언론 문물의 수용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일본 근대언론의 원형적 성격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우선 일본이 어떻게 서양의 언론문물을 도입, 수용하여 어떠한 성격의 언론으로 형성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일본도 중국이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근대언론문물을 도입하여 근대언론을 탄생시켰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어떻게 서양의 근대언론문물을 받아들여 근대언론이 생성되었는가?

II. 西洋人들과 직접 交流의 시작과 鎖國

일본에서 근대적 신문과 잡지가 처음 출현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 일본에도 중국이나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의 전통적 언론현상들이 없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와라반>(瓦版)이라는 신문현상을 들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전근대적 신문현상도 중국의 전통적 신문현상인 <저보>(邸報)나 우리 한국의 전근대적 신문현상이었던 <조보>(朝報)와 마

찬가지로 근대언론으로 이행, 발전하지 못하고, 서양의 언론문물들을 도입, 수용하여 19세기 중반에 근대언론이 탄생했는데, 그러면 일본은 언제부터 서양의 언론문물을 도입하게 되었는가?

1. 西洋의 日本 진출과 西洋文物 傳來의 시작

서양의 언론문물이 언제부터 일본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양인들이 일본에 처음 내항(來航)한 것은 1543년이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서양의 언론문물이 일본으로 이입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서양인들의 일본 진출의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는데, 서양인들 중 맨 먼저 동양 진출을 꾀한 포르투갈인들은 1488년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동양으로 오는 항로를 발견하고, 이를 따라 1498년부터 인도로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세기 뒤에는 일본에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일본에 처음 온 포르투갈 선박은 본래부터 일본을 목표로 온 것은 아니었고, 중국의 닝포(寧波)로 향하던 도중 난파해서, 1543년 8월 일본 규슈(九州) 남단 타네카시마(種子島)에 표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서양의 여러 문물이 일본으로 직접 전래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철포(鐵砲)였다.[4)]

위와 같이 타네카시마에 표착했던 포르투갈 선박에 이어 포르투갈 상선들이 잇달아 일본에 내항, 규슈를 중심으로 무역을 시작하면서 나가사키(長崎), 히라도(平戶), 후나이(府內, 지금의 大分) 등지에서 대일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 즈음

---

3) 이는 중국의 전통적 신문인 <저보>나 우리 한국의 전근대적 신문이었던 <조보>와는 달리, 전쟁·화재·지진 등에 관한 그림과 그에 관한 간단한 설명문을 목판(木版) 또는 토판(土版)으로 인쇄하여 가두(街頭)에서 판매한 1매 또는 2매짜리의 원시적 형태의 신문이었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러한 <가와라반>들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은 1615년 5월 오사카성(大坂城)을 둘러싸고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군대간에 벌어졌던 전투(大坂の陣) 장면의 그림에 간단한 해설을 곁들여 보도한 "오사카아베합전지도"(大坂安部之合戰之圖)라는 제목의 가와라반을 들 수 있음.

4) 포르투갈인들의 철포를 본 타네카시마 도주(島主) 토키타카(時堯)는 그 가신(家臣)에게 "돈은 얼마든간에 철포를 입수하라"고 명하여 두 자루의 총을 구입하여 그 사용법과 화약제조법을 배우도록 하고, 철포 한 자루를 분해하여 복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음. 그러자 일본의 다이묘(大名)들이 앞다투어 철포를 생산하기 시작, 사카이(堺), 오오미(近江), 키이(紀伊)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생산체제로 들어가서, '화승총'(火繩銃)이라는 이름의 철포가 널리 보급되자, 일본 군대도 기마대 중심에서 철포대 중심의 집단전법으로 변화했음. 그리하여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철포(우리나라에서는 '조총'이라고 불렀음)로 무장하고 침략해 오자, 활과 창으로 무장했던 우리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었음.

스페인도 히라도에 내항했으나, 그 활동은 포르투갈에 비해 저조했는데, 당시 일본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을 남쪽에서 온 오랑캐라고 생각, 이들을 '난반진'(南蠻人)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들과의 무역은 '난반무역'(南蠻貿易)이라고 불렀는데,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인들은 철포 · 화약 · 모직물 등의 유럽 산물과 생사 · 견직물 등의 중국 산품 및 피혁 · 향료 등의 남아시아 산품을 일본에 가져왔고, 일본에서는 금(金) · 은(銀) · 동(銅) · 황 등 광물과 칠기(漆器) · 도검류(刀劍類) 등의 공예품을 주로 사갔다.

2. 서양 선교사들의 來日과 그리스도교의 傳來

1549년에는 일본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스페인 선교사 프란시스코 자비에르(Francisco de Xavier)가 가고시마(鹿兒島)에 상륙했는데, 당시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국의 아시아 진출은 무역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포교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자비에르를 뒤이어, 서양 선교사들이 속속 일본에 건너와 포교활동을 하면서, 교육사업과 자선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신도들을 늘려갔다. 그리하여 1582년경에는 신도수가 규슈에 12만여 명, 키나이(畿內)에 2만5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는데(라이샤워와 페어뱅크, 1960, p. 751), 이는 1573년 무로마치(室町) 막부를 멸망시키고, 그 대신 정권을 장악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그리스도교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세가 확장되면서 서양과의 문화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서양의 정교한 시계, 소형 피아노, 유리그릇, 안경, 망원경 등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특히 크리스찬 다이묘(大名)들을 중심으로 '난반문화'(南蠻文化)라는 이름의 서양문화가 성행했으며, 각지에는 교회당과 학교, 병원 등이 세워졌다.

1582년 노부나가의 사망 후, 그 대신 정권을 잡게 되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를 보호하면서, 서양인들과 무역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리가 자신의 전국 지배에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한 히데요시는 1587년 갑자기 모든 선교사들의 추방과 포교 금지령을 내렸으며, 다이묘가 신자가 되려면 자신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금교령은 발동하지 않았고, 선교사 추방도 강행하지 않으면서, 서양인들과의 무역을 계속 장려했다. 그러다가 1597년 1월 정유재란을 일으키던 바로 그 해, 히데요시는 다시 갑자기 선교사들의 추방령을 강행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교의 금교

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는 계속 증가했으며, '난반'이라고 일컬어진 서양 풍속이 일본인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예컨대 일신교(一神教)에 대한 개념, 일부일처제에 대한 도덕적 관념 등 그리스도교적 정신이 일본인들의 관념과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3. 西洋人들의 추방과 2백여 년간의 鎖國

1598년 히데요시 사망 후, 다이묘들간의 치열한 정권 쟁탈전에서 승리하여 1603년 천황으로부터 쇼군(將軍)의 직위를 받고, 에도(江戶, 지금의 東京)에 막부(幕府)를 개설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5]도 집권 초기에는 히데요시와 마찬가지로 서양인들과 교역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관대하게 대했다. 그러다가 이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한 이에야스는 1606년 반(反)그리스도교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양인들과의 교역은 장려했는데, 1609년에는 화란(네덜란드, 일본에서는 '오란다'라고 부름) 선박 한 척이 처음으로 규슈의 히라도(平戶)에 들어왔으며, 1613년에는 영국 선박도 이곳에 들어와서 무역관을 설치하고 일본과 교역을 개시했다.

그런데 신교(新教) 국가였던 화란과 영국은 무역에만 열중하고, 그리스도교 선교활동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구교국가였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역보다 선교활동에 더 주력했다. 그러자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막번체제(幕番體制)의 봉건지배에 위협이 될지 모른다고 여긴 이에야스는 1612년 그리스도교 금교령(禁教令)을 내려, 그리스도교 교회와 그 기관들을 폐쇄시키고, 자신의 부하들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교를 버리라고 명령하면서 그에 순응하지 않은 자들은 사형시켰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이에야스의 후계자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6]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1617년 4명의 선교사를 처형했으며, 1622년에는 또 선교사를 비롯하여 일본인 신자 120명을 사형시켰다. 그런가 하면, 히데타다는

---

5) 이 도쿠가와 히데요시 정권은 에도에 막부를 두었기 때문에 '에도 막부'(江戶幕府)라고도 부르며, 또한 이에야스의 성(姓)을 따서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라고도 부름. 그리고 이 막부의 통치시대를 에도시대(江戶時代, 1600-1868)라고 함.

6) 히데타다는 이에야스의 3남으로서 1605년 이미 이에야스로부터 쇼군직을 물려받았으나, 실제적으로 실권을 잡게 된 것은 1616년 이에야스의 사망 후부터였음.

그리스도교 신자가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양 선박의 출입은 나가사키와 히라도에만 국한시켰으며, 무역도 제한했다. 그러자 영국은 1623년 일본과의 무역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나 그 밖의 나라들은 계속 일본에 출입하자, 1624년 히데타다는 먼저 스페인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 다음으로는 포르투갈인들이 1637년 시마바라(島原)에서 일어났던 일본 그리스도교도들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씌워 1639년 추방해 버렸다. 그리고 화란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선박들의 내항(來港)을 금지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해외에 나가 서양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막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과, 해외에 나갔던 일본인이 귀국하는 것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들이 해외로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원양(遠洋) 항해가 가능한 선박의 건조(建造)까지도 금지해 버렸다. 그리고 1639년부터 1854년까지 무려 2백여 년 동안 철저히 쇄국정책을 실시했다.

4. 和蘭과의 교역은 허용, 해외정보도 입수

위와 같이 일본의 에도 막부는 1639년부터 철저한 쇄국을 단행했다. 그러나 화란과 교역만은 계속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화란이 무역과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을 통해 해외 사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본래 히라도에 있던 '화란상관'(和蘭商館), 즉 무역관을 1641년 나가사키(長崎) 항구 내의 조그만 인공섬 데지마(出島)로 옮기게 하여, 이곳에서의 교역만 허용했다. 그러면서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에 '나가사키봉행사'(長崎奉行使)라는 관직의 관리를 파견, 그로 하여금 화란 선박의 내항(來航)과 화란상관의 동정을 감시하고, 또한 화란인과 일본인들간의 접촉을 철저히 금지토록 했다.

한편 에도 막부는 화란을 통해 해외 사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화란상관장에게 서양과 아시아 각국의 상황과 동정(動靜) 등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그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한 번씩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그리하여 화란상관장이, 자기 나라 선박들이 일본에 내항(來航)할 때 화란과 서양 각국 신문들을 가져오게 하여 세계 각국의 동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일본측에 제출하면, 그것을 일본인 '오란다통사'(和蘭通詞, 즉 화란어 번역관)가 번역하여, 나가사

키 봉행사를 통해 에도의 막부에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를 '오란다 풍설서'(和蘭風說書)라고 불렀다.

바로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에도 막부는 쇄국정책을 견지하면서도 해외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1840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관해서도 알게 되자, 에도 막부는 1842년부터 화란상관장에게 만약 해외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에 관한 별도의 상세한 보고서를 즉시 제출토록 했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베츠단 풍설서'(別段風說書)라고도 불렀다. 그리하여 일본의 에도 막부는 여러 가지 해외정보들을 입수했으나, 이들을 비밀로 하면서 막부의 타이로(大老), 로주(老中), 와카도시요리(若年寄) 등의 요인(要人)들만 독점했다. 그러나 간혹 일부의 '한슈'(藩主), 즉 봉건영주들과 지식인들에게 알려 주기도 했다.

Ⅲ. 타의적 개항과 西洋言論文物의 자발적 도입

일본도 위와 같이 1639년부터 무려 2백여 년 동안이나 쇄국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에도시대 말기인 1854년 미국과 화친조약(和親條約)을 맺으면서 다시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양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신문・잡지 등의 언론문물도 수용하게 됨으로써 일본에서도 근대언론이 생성되었는데, 그러면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이 도대체 왜 서양에 다시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의 언론문물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1. 西洋列强의 강요에 의한 문호의 개방

일본이 서양에 다시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즉, 1853년 7월 8일 일본 에도만(江戶灣, 현 동경만)에 갑자기 네 척의 '구로후네'(黑船,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 배를 이렇게 불렀음)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증기기관(蒸氣機關)의 힘으로 움직이는 외륜(外輪)을 선체(船體) 양쪽에 단 커다란 '구로후네'들이 바람과 파도의 반대방향으로도 힘있게 달리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들 '구로후네'는 미국 동인도함대(東印度艦隊) 사령관 매튜 페리(Matthew C. Perry)가 끌고 온 군함들이었는데, 미국

대통령 밀라드 필모어(Millard Fillmore)의 국서(國書)를 지참하고 온 페리는 무력을 앞세우면서 일본의 에도 막부에 개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이에 놀란 에도 막부는 일단 미국 국서를 수취하면서 다음 해 답신(答申)하기로 약속하고 페리 함대를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던 페리는 이듬해 1월 다시 7척의 '구로후네'를 끌고 와서 에도 막부에 답신을 요구했다. 그러자 앞서 언급한 '화란풍설서'를 통하여 미국의 강력한 힘을 이미 알고 있던 에도 막부는 미국의 무력적 강요에 굴복,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해, 즉 1854년 3월 31일 미국과 시나가와(神奈川)에서 미·일 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 일명 神奈川條約)을 맺었는데, 이 조약의 요지는 일본은 시모다(下田)와 하코다데(函館)의 2개 항구를 미국에 개항하고, 미국과 소규모 통상을 시작하며, 미국의 항해선박에 물품을 급여하고, 표류선원을 구조하며, 미국 영사의 일본 주재를 승인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2백여 년만에 다시 서양 국가인 미국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그러자 서양의 다른 열강들도 일본에 조약체결을 요구해 왔다. 그리하여 일본은 1854년 10월 14일 영국, 1855년 2월 7일에는 러시아, 1857년 10월에는 화란, 그리고 그 뒤 프랑스와도 화친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화친조약은 수호관계와 제한된 통상 및 일부 항구만 개항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통상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미국은 다시 일본에 통상조약의 체결을 요구해 왔다. 그리하여 1858년 7월 29일 일본은 미국과의 "교역(交易)을 위해 일본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요지의 미일통상조약(美日通商條約, 일명 Harris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 영국·러시아·화란·프랑스 등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에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들 조약은 모두가 서양측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일본에 불리한 불평등조약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조약을 일본은 1876년 2월 16일 우리 한국과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일명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강요했던 것이었다.

2. 秘密로 해왔던 해외사정의 공개를 決定

일본이 위와 같이 서양 열강들에게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자, 자연히 서양의 문물제도들이 일본에 이입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은 서양의 문물제도들을 자발적

으로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양의 사정과 문물제도, 기술 등을 일본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양의 신문과 잡지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앞서 말했듯이, 일본이 서양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 에도 막부는 화란상관장으로 하여금 '오란다 풍설서'를 제출하게 하여, 해외사정을 알았다. 그러나 1854년 미국・영국과 화친조약을 맺은 뒤, 에도 막부는 '오란다 풍설서'의 제출을 폐지하고, 그 대신 화란과 서양 여러 나라 신문들을 헌상토록 했다. 그리하여 이들 신문의 주요 내용을 1855년 설치한 요가쿠쇼(洋學所)에서 번역하여 에도 막부의 요로자(要路者)들에게 올리도록 했는데, 요가쿠쇼는 1856년 2월 그 명칭을 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로 바꿨다.[7] 그리하여 1856년 2월부터는 반쇼시라베쇼에서 서양 신문들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에도 막부의 요로자들에게만 배부토록 했다. 그러다가 이들을 1861년 일반국민들에게도 배포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 오랫동안 일반국민들에게 비밀로 했던 해외정보들을 도대체 왜 개방키로 했는가?

그 주요 이유의 하나는, 해외사정을 일본 국민들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1858년 7월 29일 미일통상조약의 체결 후, 일본이 서양 열강에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자, 수많은 서양인들이 일본으로 몰려 왔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자(英字) 신문까지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최초는 1861년 6월 22일 영국인 한사드(A. W. Hansard)가 나가사키에서 창간한 <나카사키 쉬핑 리즈트 앤드 애드버타이저이저>(*The Nagasaki Shipping List and Advertise*)라는 매주 2회 발행(수요일과 토요일)의 상업지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창간 5개월만인 1861년 10월 1일 제28호를 끝으로 종간하고, 그 발행자 한사드는 요코하마로 옮겨가서, 동년 11월 23일 <더 재팬 헤럴드>(*The Japan Herald*)라는 영자지를 새로 창간했다. 바로 이처럼 서양인들이 일본에 들어와 신문까지 발행하자,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해외정보를 숨길 수 없던 에도 막부는 서양 신문들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일반국민들에게도 배포하도록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개국이 에도 막부의 자발적 문호개방

---

7) '반쇼'(蕃書)'란 오랑캐 책이라는 뜻인데, 반쇼시라베쇼와 그 전신인 요가쿠쇼(洋學所)는 에도 막부의 양학(洋學)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서양 신문들의 번역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양서(洋書)도 번역, 출판했으며, 또한 에도 막부의 신하들과 그 제자에 대한 양학교육도 실시했음. 이러한 반쇼시라베쇼는 1862년 5월 요쇼시라베쇼(洋書調所)로 개칭했다가, 1863년 8월 다시 카이세이쇼(開成所)로 개칭했음.

정책이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선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에도 막부가 서양 열강의 강요에 굴복하여 개국을 하자, 이를 반대하면서 "양이(洋夷)를 물리치자."는 양이론자(攘夷論者)들이 전국을 들끓게 했는데, 이들을 무마하고 국민 여론을 개국론 이데올로기로 유도하려면, 서양의 사정과 발달된 문물제도, 기술 등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 일본도 문명개화하자는 것이 곧 에도 막부의 자발적 문호개방정책이었던 것처럼 선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3. 和蘭新聞을 抄譯, <官版바타비아新聞> 등을 발행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내지 목적에서 에도 막부는 반쇼시라베쇼로 하여금 서양 신문들에서 세계 각국 사정에 관한 주요 기사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 인쇄하여 일반국민들에게도 판매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반쇼시라베쇼는 당시 화란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에 있던 화란총독부 기관지(週刊) <야바셰 쿠란트>(*Javasche Courant*)의 '외국기사'란에 실려 있는 기사들을 번역, 이들을 목활자(木活字)로 인쇄해서, 1862년 1월 <간반바타비아신문>(官板バタビヤ新聞)이라는 제호(題號)로 제1권을 발행하여 일반국민들에게도 판매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신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최초의 간행물이었다(제호 앞에 '官版'이라고 붙인 것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라는 뜻임). 그러나 그 내용이나 형태가 당시 서양의 신문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냐하면 <간반바타비아신문>은 1861년 8월말과 9월초 발행의 몇 개 호(號)의 <야바셰 쿠란트>지 '외국기사'난에 실려 있는 세계 각국 관계 기사들과 '내국기사'난에 실려 있는 화란관계 주요 기사내용들을 초역(抄譯)해서 부정기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형태도 소책자(小冊子)와 같이, 크기는 일본 화지(和紙)의 반절(半折)이었고, 매수는 5매에서부터 10매 전후였으며, 제본을 하고, 별도의 표지를 달고 그 왼쪽 상단에 한자와 일본의 가다카나(片仮名)로 '官板バタビヤ新聞'이라는 제호를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신문이라기보다는 <야바셰 쿠란트>지에 실렸던 세계 각국 관계 주요 신문기사들의 초록집이었으나, '신문'이라는 서양의 언론문물을 일본에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간반바타비아신문>은 1862년 1월 중에 제12권까지, 2월 중에 제13권에서 제23권까지 발행했는데, 12권까지의 내용은 1861년 8월

31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그리고 제13권에서 제23권까지의 내용은 1861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발행했던 <야바셰 쿠란트>지의 위와 같은 기사들을 초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간반바타비아신문>을 1862년 2월 제23권까지 발행한 뒤,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몇 개월 동안 발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동년(1862) 5월 반쇼시라베쇼를 요쇼시라베쇼(洋書調所)로 개칭한 뒤, 동년 8월부터 <간반바타비아신문>을 <간반카이가이신문>(官板海外新聞)으로 개제(改題)하여 8월과 9월중에 모두 9권 발행했는데, 이들은 1862년 1월 1일부터 29일 사이 <야바셰 쿠란트>지에 실렸던 세계 각국 관계 주요 신문기사들을 초역한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요쇼시라베쇼에서는 동년(1862) 8월 <간반카이가이신문별집>(官板海外新聞別集)이라는 것의 상권(上卷)을, 9월에는 중권(中卷)을, 10월에는 하권(下卷)도 잇달아 발간했는데, 이들은 <야바셰 쿠란트> 이외의 다른 신문들에 게재되었던 기사들을 번역, 출판한 것이었다. 즉 이들 중, 상권과 하권은 미국의 뉴욕신문들에 게재되었던 미국 남북전쟁에 관한 주요 기사들을 초역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권은, 1962년 일본의 에도 막부가 유럽 시찰을 위하여 파견했던 견구사절단(遣歐使節團) 우치노 모리가즈(內野守一) 일행의 동정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와 화란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지의 화란신문들이 보도했던 기사들을 모아서 일본어로 초역한 것이었다.

4. 서양인 발행의 中國新聞들도 들여다가 飜刻

위와 같이 에도 막부는 반쇼시라베쇼(1862년 5월 요쇼시라베쇼로 개칭)로 하여금 <야바셰 쿠란트>와 서양의 여러 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발행했다. 또한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중국어, 즉 한문(漢文)으로 발행하던 신문인 <중외신보>(中外新報)와 <홍콩신문>(香港新聞)도 들여다가 이들은 번역하지 않고, 번각(飜刻)해서, <간반주가이신보>(官板中外新報)와 <간반홍콩신문>(官板香港新聞)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식자층(識字層)도 중국 한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8)]

8) 여기서 '번각'이란 인쇄물의 복사기술이 발명되지 않았을 시대에, 인쇄물을 복제(複製)하기 위하여 그 원문(原文)을 다시 목판(木板) 등에 새기거나 또는 활자로 다시 조판해서 인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이 중국어신문들을 발행한 것은, 당시 일본의 식자층(識字

이러한 번각신문 중 <간반주가이신보>는 홍콩에서 영국인 조지 라이더(George N. Ryder)가 발행하던 <중외신보>(中外新報)를 번각한 것이었는데, 이 <중외신보>는 홍콩의 영문일간지 <데일리 프레스>(*The Daily Press*, 1857년 창간)의 중문판(中文版) 형태로 1858년 창간한 중국 최초의 근대적 중국어 신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중국 신문을 들여다가 반쇼시라베쇼(1862년 5월 요쇼시라베쇼로 개칭)에서 번각한 것이 <간반주가이신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중외신보>와 똑같은 체제로 번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당시 <중외신보>는 4절 크기의 양지(洋紙)에 단면인쇄를 해서 매일 1면씩 발간했으며, 그 중 3분의 1만이 뉴스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광고였다(차배근, 1985, p. 116). 하지만 <간반주가이신보>는 <중외신보>에 게재된 여러 날짜의 뉴스 기사들만 한데 묶어, 이들을 일본 화지(和紙) 8 내지 9장(張) 분량의 소책자(少冊子) 형태로 발간했으며, 그 앞에 별도의 황색 표지를 달고 그 왼쪽 상단에 '官板中外新報'라는 제호를 달아 놓았다.

이와 같은 <간반주가이신보>는 모두 13책을 발간했는데, 이들은 1858년부터 1862년까지 사이에 중국 <중외신보>에 게재되었던 기사들을 번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 번각해서 발간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9]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 역시 앞서 말한 번역신문 <간반바타비아신문> 등을 발행한 해인 1862년 발행한 것 같다(이명수, 1987, p. 18).

다음으로 또 하나의 번각신문인 <간반홍콩신문>은 홍콩의 어떤 신문을 번각했는지 확실치 않은데, 일본의 야마모토 후미오(山本文雄)에 의하면, 상기 <간반주가이신보>는 중국 닝포에서 서양선교사들이 발행하던 신문을 번각한 것이며, <간반홍콩신문>은 홍콩의 영자지(英字紙) <데일리 프레스>(*The Daily Press*)의 한문판을 번각한 것이라고 한다(山本文雄, 1976, p. 3). 그러나 1862년경 닝포에서는 서양선교사들이 발행한 신문은 없었고, 홍콩의 영자지 <데일리 프레스>의 한문판(중문판)은 앞서 말했듯이 <중외신보>였으며, 당시 홍콩에서 중국어로 발행한 신

層)도 중국 한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신문들의 기사는 일본어로 번역하지 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번각해서 발행했던 것임. 따라서 이들을 '번각신문'(飜刻新聞)이라고 부름.

9) <간반주가이신보> 제1책 표지를 보면, 제호 아래 "一千八百五十八年, 咸豊八年十一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보면 1858년 처음 <간반주가이신보>를 발행한 것처럼 보이나, 제1책 내용을 보면, 1858년 발행의 중국 <중외신보>들을 번각한 것이며, 또한 '함풍'(咸豊)이라는 중국 연호(年號)를 사용한 것을 보면(당시 일본에서는 '文久'라는 연호를 사용했음), <간반주가이신보> 제1책 표지 제호 아래 "一千八百五十八年, 咸豊八年十一月"이라고 기재한 것은 곧 제1책은 1858년 11월 발행의 중국 <중외신보>를 번각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제1책의 발행 연도는 아님이 분명임.

문은 이 <중외신보>밖에 없었다. 따라서 <간반홍콩신문>도 <간반주가이신보>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중외신보>를 번각한 것이었으나, 한때 <간반주가이신보>라는 이름 대신, <간반홍콩신문>이라는 제호로 발행했던 것 같으나, 확실치는 않다. 그리고 <간반홍콩신문>의 발행 연도도 확실치는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 1861년 7월 5일부터 익년 5월 2일까지의 뉴스들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1862년이나 1863년에 발간했던 것 같은데, 모두 8권을 발행했다고 하나, 이것도 역시 확실치는 않다.

5. 서양잡지들도 들여다 抄譯 또는 飜刻해서 발행

에도 막부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양 신문들을 구해다가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중국에서 서양인 발행의 중국어(한문) 신문들을 가져다가 번각해서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잡지들도 이와 같이 했다. 서양 잡지들은 주로 화란 것들이 수입되었으며, 이들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에서 그 주요 내용들을 초역하여 <간반교쿠세키시린>(官板玉石志林)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이 이름에서 '시린'(志林)이란 '잡지'라는 의미로서, 그 뒤 명치시대(明治時代, 1868～1912)의 잡지들 중에도 <가쿠게이시린>(學藝志林)이니 <메이호오시린>(明法志林)이니 하여, '시린'이란 이름을 붙인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간반교쿠세키시린>이라는 이름에서 '시린' 앞에 '교쿠세키'(玉石)라는 말을 넣은 것은 아마도 "옥석과 같이 중요한 잡지" 또는 "옥석과 같이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잡지"라는 뜻에서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이름의 <간반교쿠세키시린>은 화란의 여러 잡지들로부터 서양의 문물제도 등에 관한 주요 기사들을 초역하여 서적 형태로 발행한 것이었다. 이는 각 기사 끝에 밝혀놓은 기사들의 출전(出典)이 모두 '하란보함'(荷蘭寶函)이라고 씌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란'은 화란을 말하며, '보함'이란 잡지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화란의 여러 잡지들의 주요 내용을 초역하여 발행하는 한편,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중국어(한문)로 발행한 잡지들도 가져다가 번각해서 발행했는데, 이러한 번각잡지들로는 <간반리쿠고소단>(官板六合叢談), <간반주가이잡지>(官板中外雜誌), <가니칸친>(遐邇貫珍) 등을 1861년～63년 동안 발간했다. 이들 중 <간반리쿠고소단>은 서양선교사 알렉산더 월리(Alexander Wylie)가 1857년 1월 상하이(上海)에서 창간해 이듬해 5월까지 발행했던 월간(月刊) 과학잡지인 <육

합총담>(六合叢談)을 번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간반주가이잡지>는 런던선교회 소속의 선교사 존 맥고원(John Macgowan)이 1862년 6월 역시 상하이에서 창간(1868년 폐간)한 종합지 성격의 월간 중문잡지였던 <중외잡지>(中外雜誌)를 번각한 것이었는데, 중국 <중외잡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잡지'라는 말을 제호(題號)에 붙였던 잡지이며, 이 잡지의 일본 번각판인 <간반주가이잡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잡지'라는 말을 제호에 붙였던 것이었다. 한편 <가니칸친>은 역시 런던선교회 소속의 선교사 월터 메드허스트(Walter H. Medhurst)가 1853년 6월 홍콩에서 창간, 3년 동안 발행하다가 1853년 폐간한 홍콩 최초의 근대적 중문잡지(中文雜誌) <하이관진>(遐邇貫珍)을 번각한 것이었는데, 이 잡지 제호에는 왜 '간반'(官版)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번각잡지들은 '잡지'라는 서양의 언론문물을 일본에 이입시키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 번각잡지는 당시 일본에서 발간하던 번각신문들과 그 체제나 형태가 거의 동일하여 서로 구별되지 않았다. 그래서 번각잡지가 곧 일본에 근대적 잡지를 생성시키지는 못했으나, 일본인들에게 서양의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 등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는 커다란 공헌을 했다.[10]

Ⅳ. 日本人에 의한 최초의 新聞·雜誌의 出現

위와 같이 일본의 에도 막부는 서양 신문과 잡지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중국에서 서양인 발행의 중국어신문들을 가져다가 번각해서 '<간반바타비아신문>'이니 '<간반주가이잡지>'이니 하는 이름으로 발행했는데, 그 주요 이유의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개국을 반대하는 양이론자(攘夷論者)들을 무마시키고, 에도 막부의

10)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잡지의 내용을 초역해서 출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承政院日記≫ 고종 19년(1882) 8월 23일조와 같은 날짜 ≪高宗純宗實錄≫을 보면 "幼學 池錫永이 상소를 올려 ≪萬國公法≫, ≪朝鮮策略≫, ≪譜法戰記≫, ≪博物新編≫, ≪格物入門≫, ≪格致彙編≫ 등과… 進士 安宗洙가 번역한 ≪農政新編≫, 縣令 金景洙의 ≪公報抄略≫ 등은 모두 족히 蠢愚들을 開明하야 時務를 瞭解케 하는 것들이니, … 이들을 출간하여 선비들이 보게 하고자 청하니 왕은 이를 가상히 여기어 議政府로 하여금 판단처리토록 했다"는 내용이 나오나, 불행하게도 실제로 출간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위의 기록에 나오는 ≪格致彙編≫은 서양 선교사 John Fryer가 1867년 상하이에서 창간해서 중국어로 발행하던 과학잡지(월간)였던 것 같고, 金景洙의 公報抄略은 미국선교사 Yong J. Allen이 당시 발행하고 있던 종합잡지 ≪萬國公報≫의 내용 중에서 서양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에 관한 중요 기사들을 뽑아 번역한 것이었음이 틀림없음.

문호개방정책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관판신문・잡지들의 발행을 1863년 가을부터 부득이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1. 攘夷論의 격화로 인해 官版飜譯・飜刻新聞雜誌을 정간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개국을 반대하는 양이론의 격화 때문이었는데, 특히 1858년 7월 29일 미・일 통상조약(美日通商條約)의 체결 이후, 거세게 일기 시작했던 양이론은 점점 확산되어 재야(在野)뿐 아니라, 막부 내부에서도 양이론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갔다. 그러면서 양이론자들은 1862년 4월 21일, 막부의 쇼군을 교토(京都)로 오게 하여, 동년 6월 25일을 '양이 시행일'로 정하고, 이날부터 모든 서양인들을 추방토록 강요했다. 그러나 이를 막부에서 결행할 기미가 없자, '양이 시행일'인 6월 25일 초슈번(長州藩)의 과격파 양이론자들이 서양 선박에 포격을 가했다. 그러자 7월 미국과 프랑스의 군함이 초슈번을 포격했으며, 8월 15일 영국 군함은 사쓰마번(薩摩藩)의 수부(首府) 가고시마(鹿兒島)에 포격을 가했다.

이렇게 되자, 양이론은 일본 전국에서 더욱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에서 개국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관판(官版)의 번역 또는 번각신문・잡지들을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봉건일본의 개국・개명과 서양의 새로운 언론문물의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판신문・잡지들은 마침내 정간하고 말았다.

그러나 개국 초기 해외사정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제공해주던 정보원(情報源)인 관판신문・잡지들이 나오지 않게 되자, 에도 막부의 지도자들은 외국과의 교섭은 물론, 내국의 통치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자 에도 막부는 그 요로자(要路者)들에게 해외사정을 알려주어 집무상의 참고자료로 삼게 하기 위하여, 요쇼시라베쇼(洋書調所, 1863년 8월 開成所로 개칭)의 야나가와 슌산(柳河春三)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했던 양학자(洋學者)들의 단체인 가이야쿠샤(會譯社)에게, 당시 일본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하던 영자신문들의 주요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막부의 요로자들에게 배포토록 했다. 그러나 인쇄는 하지 않고 필사만 해서 배포토록 했다.

그리하여 가이야쿠샤는 1863년 3월부터, 당시 일본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하던 신문들을 번역, 필사해서 막부의 요로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일본은 다시 개국 초기와 같은 필사신문(筆寫新聞)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에서 서양인들은 어떤 신문들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그 중 어떤 것들을 가이야쿠샤가 번역, 필사해서 막부의 요로자들에게 배포했는가?

2. 일본주재 서양인들은 일찍부터 英字新聞들을 발행

우선 일본에서 서양인 발행의 서양어신문(일본에서는 '外字紙'라고 부름)의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그 역사는 앞서 살펴본 일본 막부 발행의 <간반바타비아신문>보다 6개월 빨리 시작되었는데, 그 최초 신문은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영국인 한사드(A. W. Hansard)가 1861년 6월 22일 나가사키(長崎)에서 창간한 <나카사키 쉬핑 리스트 앤드 애드버타이저>(*The Nagasaki Shipping List and Advertiser*)라는 제호의 영자신문(英字新聞)이었다. 이 신문은 당시 일본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지로서 매주 2회, 수요일과 토요일에 발간했다. 그러나 창간 5개월만인 1861년 10월 1일 제28호를 끝으로 종간했다.

그리고 이 신문의 발행자 한사드는 요코하마로 옮겨가서, 동년 11월 23일 일본에서 두 번째 서양인 발행의 외자신문이자 요코하마에서는 최초인 <더 재팬 헤럴드>라는 영자지를 새로 창간했다.[11] 이 신문은 주간지로서 매주 토요일 발행했으며 "모든 제약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표방하면서 일본 막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편집인(主筆)은 뒤에 일본 신문계에서 크게 활약한 존 블랙(John R. Black)이었다. 이러한 <더 재팬 헤럴드> 이외에 한사드는 1863년 10월 <더 데일리 재팬 헤럴드>(*The Daily Japan Herald*)라는 영자신문도 요코하마에서 창간했는데, 이는 <더 재팬 헤럴드>와는 조금 달리, 광고위주의 상업지이자, 매일 오전에 발간한 일간신문으로서, 일본 땅에서 처음 나온 일간지였다.

이러한 일간신문이 창간되기 5개월 전인 1863년 5월에는 또 하나의 영자지인 <재팬 커머셜 뉴스>(*Japan Commercial News*)가 포르투갈인 로자(F. da Rosa)가 역시 요코하마에서 창간했는데, 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의 주간지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2년만인 1865년 5월 24일 종간했다. 그리고 그 인쇄설비를 영국인 찰스

11) 이렇게 한사드가 나가사키로부터 요코하마로 옮겨가서 새로운 신문을 낸 것은, 요코하마에 더 많은 외국인이 거주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의 개국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나가사키, 시나가와(神奈川), 하코다데(箱館) 등지에 많이 거주했으나, 1859년 요코하마를 개항하자, 에도와 가까운 이곳으로 많은 외국인이 몰려들었음. 그래서 이러한 요코하마로 한사드도 옮겨와서 <더 재팬 헤럴드>를 새로 창간한 것 같음.

릭커비(Charles Rickerby)에게 양도하자, 이를 이용하여 릭커비는 동년 9월 <재팬 타임스>(*Japan Times*)라는 영자지를 창간했다.

그리하여 1861년 6월 22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서양인 발행의 서양어신문이 나온 이후 5년 동안에만도 모두 5종의 영자지들이 창간되었는데, 이들은 물론 일본 거주 외국인들을 주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치외법권의 특권을 이용, 일본 막부의 정책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하면서 일본인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이에 대하여 <더 재팬 헤럴드>의 편집인(主筆)이었던 존 블랙은 그의 저서 <영 재팬>(*Yong Japan*) 제1권에서 아래와 같이 회고한 바 있다.

> 최초로 경탄할 것은 내가 <재팬 헤럴드>의 편집인(editor)이 되었을 때 한 일본인의 방문을 받고 구자신문(歐字新聞)의 세력이 일본의 정부계통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가 나를 방문한 용건이라고 한 것은, 그 전해에 프랑스에 파견한 사절(池田筑後守 使節)이 그 사명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에도(江戶)에 감금되어 있는데, 아직 용서되지 않고 있으므로 나의 신문에 "그 사절은 당연히 용서되어야 한다."고 써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쾌히 승낙하고 논설란에 그 약속대로 썼다. 그러자 어느 날 그 남자가 나를 다시 방문하여 논설이 성공했다면서 감사하였는데, 이는 곧 구자신문(歐字新聞)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증명하는 일례다(山本文雄, 1976, p. 5에서 재인).

바로 이와 같은 블랙의 회고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당시 서양인발행의 영자신문들은 에도 막부의 태도를 변경시켰을 만큼 절대적인 위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서양 신문의 모습을 많은 일본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신문에 관한 관심을 갖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근대언론의 생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앞서 잠시 말했듯이, 위와 같은 서양인발행 영자지들의 주요 내용을 1863년부터 가이야쿠샤의 양학자들이 번역, 필사하여 에도 막부의 요로자들과 지식인들에게 배포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가이야쿠샤는 어떤 영자지들을 번역, 필사해서 배포했는가?

3. 官版新聞의 폐간 후 일본은 筆寫新聞時代로 역행

앞서 말했듯이, 1863년부터 일본의 에도 막부가 가이야쿠샤의 양학자들에게 당시 일본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하던 영자지들의 주요 내용을 번역, 필사하여 에도

막부의 요로자들과 일부 지식인들에게 배포토록 한 것은, 1862년 전국에서 물끓듯 일어난 양이론에 밀려, 그 이전에 발행해 오던 관판신문·잡지들의 발행을 부득이 중단하자, 해외사정에 관한 주요 정보원(情報源)을 잃은 막부의 지도자들이 특히 외국과의 교섭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에도 막부는 가이야쿠샤의 양학자들에게 당시 일본에서 서양인발행 영자신문들의 주요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 막부의 요로자들에게 배포하되, 인쇄는 하지 말고 필사만 해서 배포토록 했다.

바로 이러한 에도 막부의 지시에 따라, 가이야쿠샤는 처음으로 앞서 언급한, 포르투갈인 로자 발행의 <재팬 커머셜 뉴스>지의 주요 기사들을 번역하여 1863년 3월 <요코하마신문>(橫浜新聞)이라는 이름의 필사신문을 발간하여, 막부의 요로자들에게만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신문 이름을 <요코하마신문지>(橫浜新聞紙)·<니폰보에키신문>(日本貿易新聞)·<니폰고에키신문>(日本交易新聞)·<니폰보에키베츠단신문>(日本貿易別段新聞)·<요코하마보에키평판>(橫浜貿易評判) 등으로 계속 바꾸어 가면서 발행했다.

그런데 그 원본(原本)이었던 <재팬 커머셜 뉴스>가 1865년 5월 24일 폐간되자, 그 대신 가이야쿠샤는, 영국인 한사드가 요코하마에서 발행하던 <더 재팬 헤럴드>지의 주요 기사들을 번역하여 <주가이신문지>(中外新聞紙)라는 이름으로 발행했다. 또한 <더 데일리 재팬 헤럴드>지의 기사들도 번역해 <니폰마이니치신문지>(日本每日新聞)이라는 제호로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1865년 영국인 릭커비가 요코하마에서 <재팬 타임스>를 창간하자, 그 주요 기사들을 번역하여 <니폰신문>(日本新聞)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면서, 때때로 <니폰베츠단신문>(日本別段新聞)라는 호외도 발간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번역신문들의 발간은 1863년 3월부터 1865년 6월경까지 계속되었는데, 처음에는 에도 막부의 요로자들에게만 배포했으나, 뒤에는 일반희망자에게도 유료(有料)로 배포했다. 그러나 발행부수는 많지 않았는데, 이들 신문은 앞서 말했듯이 인쇄신문이 아니라, 붓으로 일일이 필사, 복제한 필사신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일본언론사에서는 '가이야쿠샤 필사신문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필사신문들은 1865년 6월경 발간을 중단하고 말았는데, 1865년 6월부터 서양인들이 일본어로 된 인쇄신문도 발행하게 되자, 더 이상 서양인 발행의 영자지 내용을 번역한 필사신문을 발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서양인들은 왜 어떤 일본어 인쇄신문들을 발행하기 시작했는가?

4. 서양인이 먼저 近代的 日本語 民間紙 발행을 시작

서양인들이 일본어신문도 발행하게 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들이 서양인 발행의 영자신문들을 번역·필사하여 발간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이 특히 해외사정에 대한 구지(求知) 욕구가 큰 것을 알게 되자, 이러한 일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이윤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서양인들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첫 번째는 1865년 6월 일본 태생의 미국시민이었던 조셉 히코(Joseph Hecco)가 요코하마에서 창간한 <신붕시>(新聞誌)라는 일본어신문이었는데, 이는 필사신문이었다. 그러나 창간 이듬해 제호를 <카이가이신문>(海外新聞)으로 바꾸는 동시에 목판인쇄를 해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최초의 근대적 일본어신문이자 순수 민간지였다.

하지만 이 신문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직접 취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정기선(定期船)들이 매월 2회 요코하마에 입항할 때마다 가져오는 영자신문들의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한, 일종의 번역신문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앞서 살펴본 가이야쿠샤 필사신문들보다 충실했으며, 또한 필사 대신 인쇄해서 발행한 인쇄신문이었다. 그리고 형태는, 비록 서양 근대신문들과는 달리, 반절(半折) 크기의 미농지(美濃紙)에 기사들을 목판인쇄해서 잡지처럼 제본한 것이었으나, 그 이전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관판 번역신문이나 그 밖의 신문들에 비하여 많이 발전된 것이었다.

때문에 이 신문은 비록 미국 국적의 히코가 창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대체로 최초의 근대적 일본어신문이자 순수 민간신문으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손꼽는 데에는 히코가 본래는 일본인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히코는 1837년 일본 효고현(兵庫縣)에서 태어났으나, 13세 때인 1850년 고기를 잡으려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난파하여 50여 일 동안 표류하다가 미국 선박에 구조되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교육도 받고, 시민권도 취득하고, 이름도 조셉 히코로 고치면서 10년 동안 체류하다가 1859년 요코하마의 개항시 미국영사관 통역으로 귀국, 일·미 교섭의 통역을 맡고 있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해외 뉴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보고, 일본인 혼마센조(本間潛藏), 기시다긴코(岸田吟香) 등의 협력을 얻어 <카이가이신문>을 창간했다. 그리하여 일본에 근대적 일본어 민간신문을 소개함으로써, '일본 근대신문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데, 그를 일본인들은 '히코'라는 미국이름보다 '하마다히고조'(浜田彦藏)라는 일본 이름으로 호칭하기를 선호한다.[12)]

이 같은 히코의 <카이가이신문>에 이어, 1867년 1월 또 하나의 일본어 민간신문인 <반고쿠신문지>(萬國新聞紙)를 영국인 목사 버크워스 베일리(Buckworth M. Bailey)가 역시 요코하마에서 창간했다. 이 신문도 형태는 위의 <카이가이신문>과 거의 비슷했으나, 내용은 해외 뉴스 이외에 일본 국내 뉴스와 학술기사 등도 게재했는데, 그 기자들로는 당시 일본의 일류 문사(文士)들이었던 오오츠키후미히코(大槻文彦), 츠카하라슈조(塚原周造) 등이 활약했고, 신문판매 대리서점을 요코하마, 오사카(大阪), 나가사키(長崎), 하코다데(箱館, 函館), 기류(桐生) 등지에 둠으로써 전국적으로 널리 읽히게 되었다. 한편 제3호에는 요코하마 소재 나가가와야(中川屋)라는 일본인 제과점의 과자광고를 실었는데, 이는 일본인이 낸 최초의 신문광고였다.

1867년 10월에 또 하나의 서양인 발행의 일본어신문인 <론돈신문지>(倫敦新聞紙)가 창간되었는데, 발행자는 영국인 스카드(斯加亞登)로 되어 있으나, 이 사람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내용은 그 제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주로 런던 신문들의 내용을 번역해서 실었다. 한편 1868년 4월에는 영국 상인 존 하틀리(John Hartley)가 오사카에서 <갓고쿠신문지>(各國新聞紙)라는 제호의 일본어신문을 창간했는데, 이 신문은 당시 일본의 존왕파 편을 들면서, 무신정권 에도 막부를 내몰고 왕정(王政)을 복고하자는 글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신문과 위의 <론돈신문지>는 창간 후 얼마 되지 않아 폐간하고 말았다.

위와 같이 일본주재 서양인들은 서양어신문 이외에, 1865년 6월부터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신문도 발행했는데, 이들 신문은 일본인들과 일본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으로는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에게 일본어신문들을 만들도록 자극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서양인 발행의 일본어신문들을 보게 된 일본인들은 자신들도 1868년 2월 <주가이신문>의 창간을 시발로 하여, 수많은 신문들을 다투어 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신문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른 논문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끝으로 일본인에 의한 최초의 일본어잡지의 창간에 관해서만 간단히 소개해 보고 끝맺기로 한다.

---

12) 山川出版社, ≪日本史廣辭典≫(1997년)에도 '浜田彦藏'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음.

4. 일본인 손으로 처음 만든 日文雜誌의 탄생

'잡지'라는 서양의 언론문물이 일본으로 처음 이입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반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잡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였으며, 이렇게 서양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잡지들을 일본에 내항(來航)하는 화란선박이 가져다가 일본에 주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 잡지들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개항 이후 1856년 2월 에도 막부가 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로 하여금 서양의 신문과 잡지들을 구해다가 일본어로 번역해서 발간토록 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반소시라베소는 화란의 잡지들을 들여다가 그 내용을 초역하여 <간반교쿠세키시린>(官板玉石志林)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했다. 그 뒤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하던 중국어잡지들도 가져다가 번각해서, 1861년~63년간에 <간반리쿠고소단>(官板六合叢談), <간반주가이잡지>(官板中外雜誌), <가니칸친>(遐邇貫珍) 등의 번각잡지들을 발간했으나, 1864년부터 중단하였다.

그러나 1867년 10월 일본인 야나가와 슌산(柳河春三)이 일본 최초의 민간잡지 <세이요잡지>(西洋雜誌)를 에도에서 창간했는데, 우선 이에 실려 있는 "서양잡지 창간의 지어(識語)"라는 제목의 창간사를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서양제국(西洋諸國)에는 신문지국(新聞紙局)이 있어, 공사(公私)의 보고(報告), 시정(市井)의 풍설(風說)을 모아, 이들을 매월, 또는 7일, 또는 매일 인행(印行)하면서, 서로 신보(新報)를 얻는 것을 다툰다. 그 중 영길리(英吉利, 英國) 같은 나라에는 신문국 수가 60여(餘)나 되어 만국에서 최성(最盛)하다고 한다. 또한 제학과(諸學科)의 사중(社中)에도 매월 출판의 총서(叢書)가 있어 신발명의 설(說)을 놓치지 않고 집록(集錄)하여 속히 동사(同社)에 전함으로써 학술의 발전을 매일매일 빠르게 만들고 있다. 오등(吾等)도 기쁘게 그 예(例)를 따라 제학과(諸學科)의 신설(新說)은 물론이고, 일용편의(日用便宜)의 방법 등을 모아, 해내(海內)의 동호(同好)에게 반포코자 한다. 이제 우선 2, 3 우인(友人)의 역고(譯稿)를 초출(抄出)하여 효시(嚆矢)로 한다. 바라건대 박아군자(博雅君子)는, 오등(吾等)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
> 경응(慶應) 3년 동(冬) 10월 양강유하(楊江柳河) 暾識

한편 권말(卷末)에 실려 있는 광고를 보면, "사방(四方)의 제군자(諸君子)에게 고(告)하여 올림. 이 잡지 출판의 뜻은, 서양제국(西洋諸國)에서 달마다 출판하는 마가세인(マガセイン, 新聞紙의 類)과 같이, 널리 천하의 기설(奇說)을 모아서

이목(耳目)을 새롭게 함을 위함이다."라고 밝혀놓고 있다. 여기서 '마가세인'이란 곧 영어의 'magzine'을 말하는데, 이를 근거로 일본에서는 야나가와가 처음으로 'magazine'을 '잡지'라고 번역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1862년 6월 런던선교회 선교사 존 맥고원(John Macgowan)이 창간한 <중외잡지>를 일본의 반쇼시라베쇼에서 번각하여 1861-63년 동안 <간반주가이잡지>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야나가와 슌산이 영어의 'magazine'을 처음으로 '잡지'라고 번역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야 어떻든 야나가와의 <세이요잡지>는 일본인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잡지였는데, 이는 주로 유럽 여러 나라의 역사와 과학관계 글을 실었으며, 분량(본문)은 34쪽이었고, 일본 종이(和紙)에 목판 인쇄했으며, 일반에게 시판(市販)했다. 하지만 1869년 9월까지 2년 동안 발행하다가 폐간했다. 그러나 <세이요잡지>의 창간 다음해인 1868년부터 명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본에서도 잡지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1896년 2월 15년 우리나라 일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 <친목회회보>를 창간하던 당시, 일본에는 2백여 종의 잡지들이 존재했으며(李明水, 1987, p. 112), 잡지의 전문적 분화가 이루어져 각 분야별로 잡지들이 나왔고, 잡지의 기업화도 시작되고 있었다.

V. 結 言

이상으로 간단히 일본의 개항 초기인 에도시대 말기 일본에서의 서양언론문물의 수용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래 본 소고는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특질과 원형적 성격을 규명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으로는 물론, 언론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중국·일본과 우리 한국 근대언론의 생성·발전과정을 비교, 고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찾아보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본 소고에서는 다만 일본은 어떻게 서양 언론문물을 도입, 수용하여 근대언론이 생성되었는지 간단히 고찰해보는 것으로서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된 이유를 굳이 들어본다면 일본에서 서양 언론문물의 도입, 수용과정에 관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논문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일본과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생성과정상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 근대언론의 생성·발전과정부터 알아보기 위하여 본 소고에서는

일본의 개항 초기인 에도시대 말기에 서양언론문물의 수용과정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중국・일본・한국 세 나라에서 근대언론의 생성・발전 과정을 비교, 고찰하면서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특질과 원형적 성격을 규명해 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근대언론이 우리나라 근대언론의 생성・발전과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면서 어떠한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근대언론은 일본으로부터 서구화된 언론문물을 도입하여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언론과 같은 원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임근수는 주장한 반면, 김현준은 비록 우리나라 근대언론이 그 생성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심미주의적이었던 일본 근대신문의 성격과는 달리,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岡滿男(1969). ≪近代日本新聞小史: その誕生から企業化まで≫.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宮武外骨(1925). ≪文明開化≫. 東京: 半狂堂.

近盛晴嘉(1970). ≪人物日本新聞史≫. 東京: 新人物往來社.

김현준(1928). "동아세아(일본・중국・한국)에서의 현대신문의 생성발전", 차배근・정진석・리대룡・박정규 편저, ≪한국신문학사≫. 서울: 정음사, 1977, pp. 362-394.

內川芳美遷(1967). ≪新聞史話: 生態と興亡≫. 東京: 社會思想社.

Lent, John A.(1968). "History of the Japanese Press", *Gazette* Vol. 14, No. 1(1968), pp. 7-36.

山本文雄 編著(1976).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史≫. 東京: 東海大學出版會.

西田長壽(1961). ≪明治時代の新聞と雜誌≫. 東京: 至文堂.

小野秀雄(1932). ≪新聞發生史論≫. 東京: 新聞之新聞社.

小野秀雄(1955). ≪新聞の歷史: 瓦板から輪轉機時代まで≫. 東京: 同文館.

小野秀雄(1970). ≪新訂內外新聞史≫. 東京: 日本新聞協會.

Suzuki, Bunshiro(1929), *Western Influence in Modern Japan, No. 10: Japanese Journalism.* Tokyo: The Japanese Council of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鈴木秀三郎(1987). ≪本邦新聞の起原≫. 東京: べりかん社.

李明水(1987). ≪日本新聞傳播史≫(6판). 台北: 大華晚報社.

Ito, Masanori(1949). "History of the Japanese Press", in *The Japanese Press: Past and Present.* Tokyo: The Japan Newspaper Publishers' and Editors' Association.

日本史廣辭典編纂委員會編(1997). ≪日本史廣辭典≫. 東京山川出版社.

임근수(1969). "동양에 있어서의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 <아세아연구>(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제36호.

임근수(1973).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Ⅰ), <신문연구소학보>(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제10집.

임근수(1974).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Ⅱ), <신문연구소학보>(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제11집.

朝倉龜三(1911). ≪本邦新聞史≫. 東京: 雅俗文庫.

차배근 · 정진석 · 리대룡 · 박정규 편저(1977). ≪한국신문학사≫. 서울: 정음사.

차배근(1985). ≪중국근대언론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春原昭彦(1990). ≪日本新聞通史≫(三訂版). 東京: 新泉社.

Hanazono, Kanesada(1934). *The Development of Japanese Journalism.* Tokyo: Nichi-Nichi Press.

興津要(1983). ≪新聞雜誌發生事情≫. 東京: 角川書店.

興津要(1997). ≪明治新聞事始め: 文明開化のジャーナリズム≫. 東京: 大修館書店.